전법 일기

“음성공양도 기도”란 단원들 나도 불자로 거듭나게 됐다

2017년 홍법사의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을 시작으로 내가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한 지 약 7년이 지나고 있다. 여러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처음으로 발원을 세우면서 지금의 나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금은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나에게도 사실 내가 불자인지 아닌지 인식이 희미했던 때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갔던 터라 너무 익숙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나를 진짜 불자로 거듭나게 해준 합창단이 있는데 바로 김해 보현사의 ‘수냐 합창단’이다.

내가 김해 보현사 수냐 합창단을 지휘하게 된 것은 2019년 10월이었다. 사실 수냐 합창단의 지휘 제의를 받았을 때 걱정이 많았다. 아이들 합창단을 지휘한 경험은 있었어도 나보다 어른이신 분들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첫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합창단 단원들이 너무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환영해주셨다.

오히려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 아이들 합창단과 달리 사찰의 성인 합창단은 매달 초하루, 백중 기도 등 사찰의 다양한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한다. 사찰의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지휘한다는 건 당시 초보 지휘자였던 나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힘든 내 마음은 곧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다. 수냐 합창단에는 합창단을 이미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합창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 악보를 전혀 모르는 분들처럼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단원들이 오로지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음성공양을 하지 않는가. 게다가 매주 진행하는 합창 수업시간에는 찬불가를 배웠는데, 단원들이 이것 자체가 법문이라고 하시니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 없이 절에 다니며 불자라고 생각했던 철없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단원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불자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수냐 합창단 단원들과 소통하며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지금까지 사찰에서 노래하고 지휘하는 모든 활동들을 되돌아보며 이후 합창단의 지휘를 내 직업 혹은 일로써가 아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최근에는 사찰마다 합창단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서 불자 지휘자인 나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내가 사찰에서 합창단을 지휘하다 보니 합창단에는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느꼈다. 첫째, 스님들의 지원과 관심, 둘째, 불교 정서를 가진 지휘자와 반주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찬불가를 기도라고 하시며 음성공양을 해주시는 단원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더 즐거운 불교, 신나는 불교, 힙한 불교라 하지만, 이는 결국 사찰을 사랑하고 신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나는 사찰 합창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함께 노래하는 이 순간들이 곧 내 발원이자 기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⑧ 혁신적인 기술에 대하여

혁신적 변화에 불교, 정견 제시해야

종교는 그 속성상 전통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는 기존의 세계관에 위배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우려의 입장을 보인다. 종교계는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도입되는 현실에 대하여 일종의 불안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기준을 검토하려는 노력이지 새로운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행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불교는 오히려 혁신적 모습을 보인다. 선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기존의 것들을 넘어서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설봉 의존(雪峰義存) 화상은 〈선문염송〉의 786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가 한 자 넓으면 고경(古鏡)이 한 자 넓어져야 하고
세계가 한 장 넓으면 고경이 한 장 넓어져야만 한다네.
(世界闊一尺 古鏡闊一尺 世界闊一丈 古鏡闊一丈, H76, 585a3-5)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옛 거울(古鏡)도 새롭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불교의 본래 면목은 전통을 맹종하는 고루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다. 질병에 따라 합당한 약을 제시하는 응병여약(應病與藥)의 태도이며, 형편에 따라 적합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방편시설(方便施設)의 자세이다. 불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목도하며 저 변화상을 꿰뚫고 정견을 제시해야 한다.

군사, 의료분야 기술 발전 빨라
두 분야 윤리 책임과 무관 적용
선수행 바탕 韓불교 혁신 내재

우리 시대의 혁신적 기술들은 특히 두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하나는 군사 분야이다. 최첨단 무기들은 당대의 과학기술에 힘입어 윤리적 책임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현란한 생명조작 기술에 힘입어 의료계는 철학적 성찰과 무관하게 혁명적으로 비약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두 분야로 공간 이동하여 기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살활(殺活) 자재의 경지는 선승들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로 불성과 무명에 대한 공간이었다. 이 점에서 선수행의 전통은 첨단 과학기술과의 대비를 통하여 생명(生命)을 원천적으로 검토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생명은 살아 있음(生)에 대한 명령(命)이어야 하므로!

광활한 대지(土)가 펼쳐져 있는 들판(一)에 삐죽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丿)들은 살아 있음(生)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싹이 피어나듯 생(生)이라는 글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람(人)이 일생(一)을 통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무엇인가를 빌거나 묻는 형국(卽)이 바로 명(命)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생명을 ‘삶에 대한 명령(生命)’으로 읽기보다 생명과학에 바탕을 둔 개체성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졌다.

코끼리를 더듬는 많은 맹인들이 혼란스럽게 말들을 하지만
옛 거울 앞에 서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네
(摸象衆盲徒亂說 當臺古鑑見著殊, 〈선문염송〉 H76, 566b17-18, 海印信)

옛 거울 앞에 서서 삶에 대한 명령에 따라 법의 성품을 일깨워야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천명(天命)과 본성을 따르는 솔성(率性)의 가르침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잊혀질 권리’ 지킬 제도 필요하다

이미지 합성 인공지능 딥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가 자행되는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국내 가입자 수만 22만 7천명에 이른다.

딥 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고인 혹은 반려동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추억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합성의 정교도가 높아지자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합성되는 인물 이미지는 대부분 일반인 SNS 게시물에서 가져온 것이다. 게시된 이미지, 영상의 얼굴을 복사해 음란물에 삽입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족적이 부지불식간에 변질돼 업(業)으로 남게 됐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카르마’로 불리는 업이다.

사사키 시즈카 하나조노대 불교학 교수의 〈인터넷 카르마〉에서는 현 시대 ‘인터넷 카르마’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인터넷 카르마는 실제 현상을 부풀리거나 심지어 진실과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결과물은 본인 의지와 달리 복제·재생산 되면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마저 빼앗는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그렇다.

딥페이크 범죄는 2022년에도 ‘지인방’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이뤄졌다. 2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함은 관련 범죄를 규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빠른 기술의 개발과 활용으로 제도가 사회현상을 뒤따르지 못했다.

불교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적어도 불자들은 인터넷에서 행동을 조심하거나 범죄물을 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규정 제정, 강력 처벌을 촉구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을 가진 불자의 실천행이다.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
굳어버린 가장의 몸

대뇌혈관 막혀 몸 절반 마비
입원치료에만 병원비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